

촉수경(觸受經)

안이비설신의

색성향미촉법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안색안식촉 이성이식촉 비향비식촉 설미설식촉 신촉신식촉 의법의식촉

안색안식촉수 이성이식촉수 비향비식촉수 설미설식촉수 신촉신식촉수 의법의식촉수

안색안식촉고수 이성이식촉고수 비향비식촉고수 설미설식촉고수 신촉신식촉고수 의법의식촉고수

안색안식촉락수 이성이식촉락수 비향비식촉락수 설미설식촉락수 신촉신식촉락수 의법의식촉락수

안색안식촉사수 이성이식촉사수 비향비식촉사수 설미설식촉사수 신촉신식촉사수 의법의식촉사수

안색안식촉각수 이성이식촉각수 비향비식촉각수 설미설식촉각수 신촉신식촉각수 의법의식촉각수

觸受經

眼耳鼻舌身意

色聲香味觸法

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眼色眼識觸 耳聲耳識觸 鼻香鼻識觸 舌味舌識觸 身觸身識觸 意法意識觸

眼色眼識觸受 耳聲耳識觸受 鼻香鼻識觸受 舌味舌識觸受 身觸身識觸受 意法意識觸受

眼色眼識觸苦受 耳聲耳識觸苦受 鼻香鼻識觸苦受 舌味舌識觸苦受 身觸身識觸苦受 意法意識觸苦受

眼色眼識觸樂受 耳聲耳識觸樂受 鼻香鼻識觸樂受 舌味舌識觸樂受 身觸身識觸樂受 意法意識觸樂受

眼色眼識觸捨受 耳聲耳識觸捨受 鼻香鼻識觸捨受 舌味舌識觸捨受 身觸身識觸捨受 意法意識觸捨受

眼色眼識觸覺受 耳聲耳識觸覺受 鼻香鼻識觸覺受 舌味舌識觸覺受 身觸身識觸覺受 意法意識觸覺受

意法意識觸覺受

有爲法(法1)

無爲法(법0)

頓法★

★
[일체의 것에 걸림없는 자유감]
으로 통하게 하는
사다리

- | | | | | |
|-----|------|-------|--------|-----------|
| *性 | *直心 | *物自體 | *慧可即脫 | *大乘頓教法 |
| *空 | *頓教 | *菩提性 | *無有定法 | *不思善不思惡 |
| *道 | *眞如 | *祖師禪 | *本來清淨 | *道可道非常道 |
| *無 | *法身 | *無念法 | *般若之智 | *本來無一物 |
| *自性 | *至道 | *一相三昧 | *天文故空 | *般若波羅蜜 |
| *本性 | *頓悟 | *五蘊皆空 | *空性相一如 | * |
| *本心 | *佛性 | *應無所住 | *三十六對法 | * |
| *唯識 | *本身 | *本源自性 | *元曉骸骨通 | * |
| *緣起 | *覺知見 | *無念頓法 | *大乘頓教法 | * |
| *無念 | *佛知見 | *眞如本性 | *般若三昧 | * |
| *無相 | *最上乘 | *頓教法門 | *自在解脫 | * |
| *無住 | *無所得 | *無上佛道 | *비빔밥通 | * |
| *卽非 | *頓教法 | *山山水水 | *장규상뽕通 | * |
| *菩提 | *一佛乘 | *頓悟菩提 | *죽은셈치기 | *凡所有相皆是虛妄 |

★(돈법): [일체의 것에 걸림없는 자유감]으로 통하게 하는 사다리(마음속의 장치, 방편, 법리 등)

<1> 돈법개념(A)을 들음(잡음)

<2> A의 뜻을 이해함(깨달음)

<3> 깨달음에 상응하는 자유감을 경험함.

17. 自性起念 雖即見聞覺知 不染萬境而常自在: 청정한 자성이 생각을 일으킨다면 비록 見聞覺知한다고 해도 만 가지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항상 걸림없이 자유롭다.

外能善分別諸法相 內於第一義而不動<維摩經>: 유마경에서도 [밖으로 모든 존재의 모습을 잘 분별하되 안으로 제일의의 진여에 움직임이 없다.]고 하신다. -----(P94)

自性이란 무엇이며, 第一義란 무엇이겠는가? 바로 頓法이다. 이 돈법의 실체는 무엇이며, 이 돈법을 파지하는 길은 무엇인가?

18. 좌선(坐禪): 元不着心 亦不着淨 亦不言動(좌선이란 안으로 마음이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청정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밖으로는 말도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이다.)

坐 : 一切無碍 外於一切境界上 念不起爲坐

禪 : 內不亂曰坐

(따져하여 뜻을 밝힌다면, 좌(坐)란 일체에 걸림이 없음이다. 즉 밖으로 일체의 경계상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하고 선(禪)이란 안으로 본성을 보되 어지럽지 않음을 의미한다.)

19. 선정(禪定): 외선내정(外禪內定)-----P 102

禪 : 外離相. 밖으로 상을 떠남(개념화를 떠남)이 선이요.

定 : 內不亂. 안으로 마음이 산란하지 않음이 정이다.

* 좌선(坐禪)이든 선정(禪定)이든 모두 돈법(頓法)으로 승화시킨다.

20. 귀의자성삼신불(歸依自性三身佛)-----P 109

어자색신(於自色身) 귀의청정법신불(歸依清淨法身佛)

어자색신(於自色身) 귀의천백억화신불(歸依千百億化身佛)

어자색신(於自色身) 귀의원만보신불(歸依圓滿報身佛)---三唱

구름과는 상관없이 태양과 허공이 빛나고 있듯 누구나의 속에는 삼신(법신보신화신)이 내재해 있다. 내재한 삼신 불에 귀의한다. 자성이 법신이며 자성이 천변만화할 수 있음은 화신이며 그지없이 이고득락을 지향함은 보신이다.

21. 발사흥서원(發四弘<大>誓願)-----P 119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변서원단 법문무변서원학 무상불도서원성---三唱

* 무상불도서원성을 위해서 [常下心行-恭敬一切]를 강조함

22. 무상참회(無相懺悔)-----P 125

전념후념급금념 염념불피우미염 종전악행일시영단 자성약제즉시참회

전념후념급금념 염념불피우치염 제각종전교광심 영단명위자성참

전념후념급금념 염념불피달투염 제각종전질투심 자성약제즉시참--三唱

*懺이란 終身不作이요, 悔란 知於前非니, 惡業의 永斷不作이 名爲懺悔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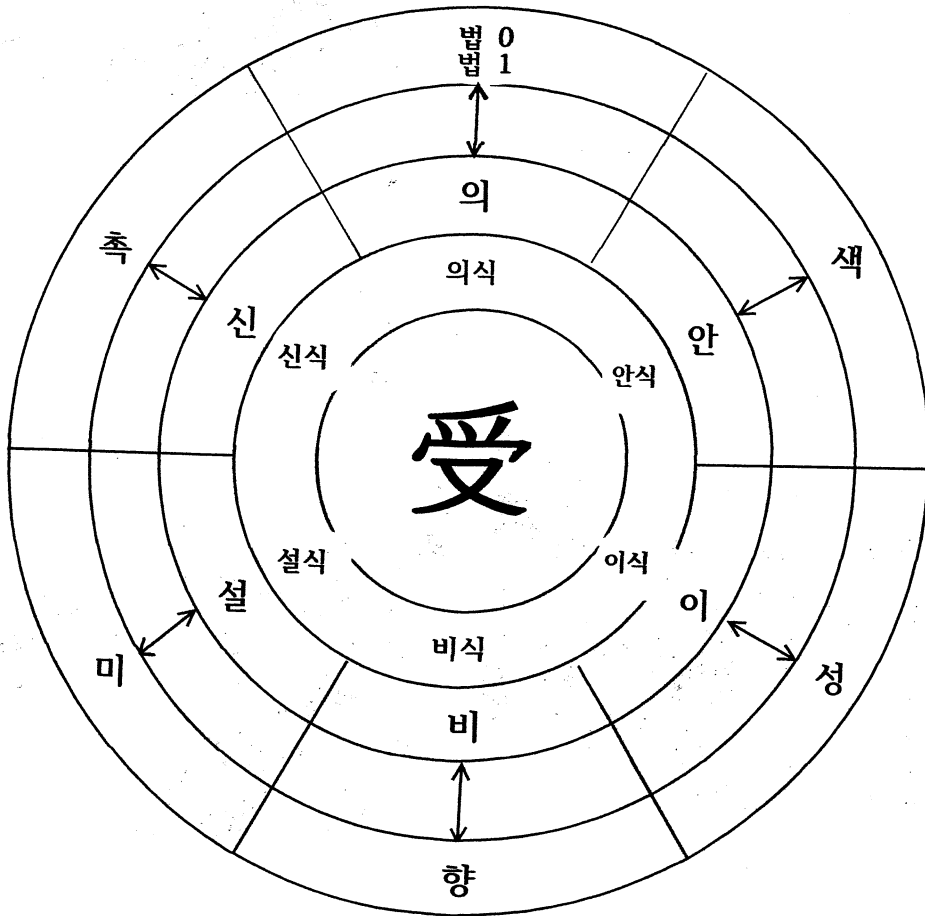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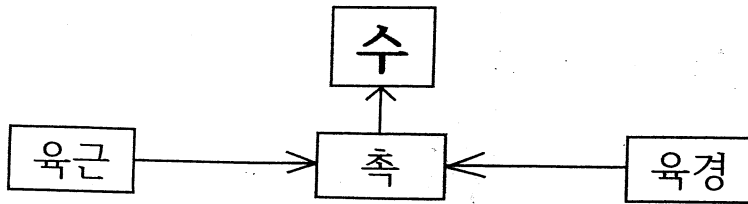
23. 수무상삼귀의계(授無相三歸依戒: 歸依自性三寶)-----P 128

歸依覺兩足尊 歸依正離欲尊 歸依淨衆中尊

24. 說摩訶般若波羅蜜-----P 135

촉수구조

모든 감각-인지 과정에는 그에 상응하는 느낌이 수반된다.



受===삼수(三受)=苦受-樂受-捨受. 四受(苦受-樂受-捨受-覺受)

觸===1)三事(根境識)和合. 2)五境(六境)의 하나, 곧 身根의 대상.

六根=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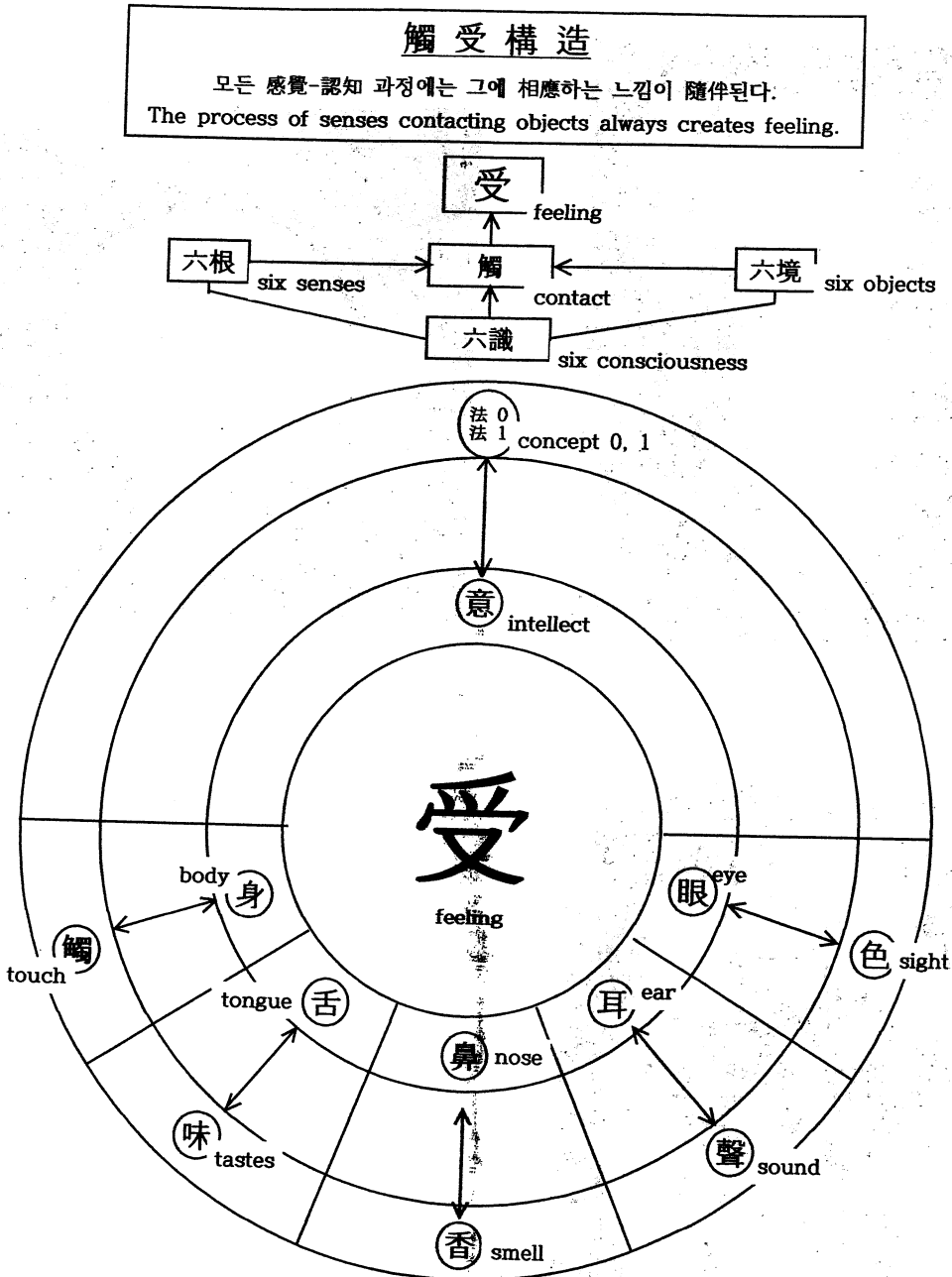
六境=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法境.

六識=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 * 촉(감각-지각)하자마자 느낌(受)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 현상의 당연한 현상이다. 이 느낌을 감지해보고, 써보고, 나누어보고, 다루어 본다는 것, 좋지 않는가!
- * 受 좋게하자는 것이 인생이요 역사라면 受를 보다 좋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 * 사수(捨受)를 즐겨라. 고수(苦受)도 락수(樂受)도 중독(中毒)이다.
- * 사수(捨受), 못믿는다. 언제라도 낙수 혹은 고수로 전락할 수 있다. 고로 각수(覺受)라야 한다. 각(覺)깨달음하라.
- * 모든 感覺-認知 과정에는 그에 相應하는 느낌이 隨伴된다고 했다. '의식(意識)'로 '法'을 감각인지 할 때 어떤 느낌이 따르겠는가? 각수(覺受)다. 니르바나요 해탈(감)이다!

觸受構造

The mechanism of contact-feeling



受===삼수(三受)=苦受-樂受-捨受. 四受(苦受-樂受-捨受-覺受)
 觸===1)三事(根境識)和合. 2)五境(六境)의 하나, 곧 身根의 대상.
 六根=眼根, 耳根, 鼻根, 舌根, 身根, 意根.
 六境=色境, 聲境, 香境, 味境, 觸境, 法境.
 六識=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意識.

- * 촉(감각-지각)하자마자 느낌(受)이 일어나는 것은 생명 현상의 당연한 현상이다. 이 느낌을 감지해보고, 써보고, 나누어보고, 다루어 본다는 것. 좋지 않는가!
- * 受 좋게하자는 것이 인생이요 역사라면 受를 보다 좋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 * 사수(捨受)를 즐겨라. 고수(苦受)도 락수(樂受)도 중독(中毒)이다.
- * 사수(捨受), 못믿는다. 언제라도 낙수 혹은 고수로 전락할 수 있다. 고로 각수(覺受)라야 한다. 각(覺:깨달음)하라.
- * 모든 感覺-認知 과정에는 그에 相應하는 느낌이 隨伴된다고 했다. '의식(意識)'로 '法0'을 감각인지 할 때 어떤 느낌이 따르겠는가? 각수(覺受)다. 니르바나요 해탈(감)이다.